

“선생님, 수계를 받아야 진짜 불자가 되는 거예요. 연비 할때 뜨겁지 않아요. 제 범행은 뭘까요, 법련화, 수연...”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서울 구룡사에는 수계를 받기 위해 소년 소녀불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법당에서는 은은한 독경소리가 흘러나왔고 때때로 도착한 학생들은 정성껏 삼배를 올리며 수계자로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했다. 이렇게 법당을 찾은 학생들은 6백 명.

반드시 치워야 하는 중요한 의식”이라며 다스기까지 계명을 학생들이 알기쉬운 비유를 들며 법문했다.

법문에 공감한듯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 합장한채 법문의 한 구절이라고 농담세라 귀기울이는 학생 등은 수계법회의 순고한 의미를 더했고 계사님께서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몇몇 학생들은 큰 소리로 “네”라고 대답해 웃음보를 터뜨리는 등 천진난만한 청소년들의 불심을 그대로 보여 주기도 했다.



◇ 지난 11월 26일 동국학원 4개 종교고 6백여 불자들은 5계를 받고 참된 불자가 될 것을 발원했다.

서울지역 종립종교 합동 수계 현장

# “연비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이 동대부종교와 명성여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이번 첫 합동수계법회는 여느 법회보다 다채롭게 시작됐다.

이날 계를 설한 녹원스님은 법문을 통해 “수계란 불자라면

이렇게 진행된 수계법회는 연비의식으로 절정을 이뤘다. 학생들은 무릎을 꿇고 호쾌한 장을 한채 “음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라며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업을 소멸해 하

는 참회진언을 독송했다. 6백여 학생들이 동시에 독송하는 참회진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간절했고 연비의식을 마친 학생들의 환한 얼굴에서 부처님마음속에 청소년들이 자리했음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스님께

600여명 오계수지 “음 살바 못자...” 참회진언 불교어머니회 40명 동참

교계 복지관을 중심으로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이 연말을 앞두고 활기를 띄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사랑의 쌀 나누기는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도든 이들에게는 불성이



◇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매월 관내 저소득층에게 기쁨의 쌀을 지원한다. (루산=천미희 기자)

# “한줌 쌀 모아 이웃에 온정을”

교계복지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줄이어

있다.라는 부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부처님께 공양미를 올릿듯 불우한 내 이웃을 공양하는 교계 복지관의 이색적인 자비실천운동이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현스님)은 지난 추석 영구임대단지내 50가구에 10Kg씩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불우이웃에게 ‘기쁨의 쌀 보내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쁨의 쌀 나누기사업은 위해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다보(多寶)’라는 쌀주머니 1천5백개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관내 저소득층에게 쌀을 지원하

는 것은 물론 노인 무료급식소를 운영, 불우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달스님)도 ‘매일 가정에서 밥을 지을 때 한줌의 쌀을 덜어 사랑의 쌀 나누기 동참합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연말연시 불우이웃들에게 나누었다.

강릉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복현)과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고스님),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쌀을 후원받아 직접 쌀로 지급하는 것 외에도 떡으로 명절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강릉 종합사회복지관은 (주)종원의

후원아래 쌀과자를 더할어 보내고 있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현스님(관음사주지)은 “한줌의 쌀이면 굶주림에 지쳐있는 내 이웃에게 따뜻한 한끼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며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국내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펼치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은 내날 트란다 등 국제 기아 돕기에만 한정되지 않으나, 사활이 너무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그동안의 우려를 일축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서 다가와 민선이에게 연비할 때만 해도 무섭고 떨렸습디다. 하지만 향불이 살갗에 닿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디다.”라고 말하는 신현정양(명성여고 1년)은 “부처님, 불교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수계식에는 불교

김종근 기자

# “유아교육 범행 가득한 환경서”

4백여 불교유치원 7일까지 신입생 모집

전국의 각 불교유치원들은 오는 7일까지 9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약 4백여곳의 불교유치원들은 유아들의 창의력 개발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해놓고 새싹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불교유치원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참선을 비롯 지능개발교육, 예절 및 효도교육, 미술, 수, 각종 표현활동 등, 특히 불교유치원은 천혜의 자연 공간으로 정서와 문화환경을 갖춘 사찰 경내에 자리잡고 있어 정서함양에도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아기는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 부처님의 법향이 가득한 환경에서 인생의 기초를 다지며 꿈의 나래를 맘껏 펼칠 수 있게 한다면 무엇보다 소중한 일일 것이다. 문의: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 (032)652-0058

# ‘새로운 세계 향한 청소년 강좌’

명원문화재단 高3 대상 실시 신심순화

명원문화재단 법과 생활문화연구소(소장 고정명교수·국립대 법학과)가 주최하는 ‘새로운 세계로 향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강좌’가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 단국대 학술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서울이고, 재현고교 등을 비롯 서울 시내 4백여명의 고3생들이 참여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레크리에이션과 건강,

어머니회인 강순복씨를 비롯 40명의 어머니들이 학생들과 함께 수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계사스님의 말씀처럼 부처님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이범준군(동대부고 1년)과 “오늘부터 꼭 5계를 지키며 생활하겠다” 권은경양(명성여중 1년)등을 비롯 환희사에 넘쳐 불자됨은 되새기는 6백여명의 학생들 모습을 지켜보던 구룡사 신도들은 “바로 이것이 부처님 세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말을 앞두고 서울 시내 종립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합수계법회는 향후 불교의 미래를 밝게 여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화 **법구경** \* 부처의 장 \*

깨달은 이의 출현은 즐겁고 바른 설법을 듣기도 즐겁다

이 향원

모르면 가만이나 있어

“행복=돈” 아니겠어!

그런데도 행복의 척도는 돈 말고 없애 이 말씀이다

하하하! 흥!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돈도 권력 앞에선 쪽도 못쓰더라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자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속물들! 어찌 생각이 거서서 멍도나

돈 많은 자는 더 많은 돈을 가진자 앞에선 기가 막 죽고

권력자는 그 위의 권력자한테 술술기는 불행함이 있으니 그것도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

우리같은 서민이 그저 배부르고 등 따뜻 하면 그게 최고의 행복 아니고 뭐겠어

모두들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구먼!

행복이란 그런게 아니고 아무 관심 거장아 착 사라고

마냥 즐겁기만 한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어

그... 그런게 뭐야?

그걸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고 그저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 이라고만 해두지

아니! 점심시간이 언제 끝났는데 여태 거서서 뭘해

어! 공장장님

도대체 무슨 얘기에 열을 올리게 일할 생각도 않고있어

헤~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행복! 그대 답을 얻었어?

그... 그... 음...

옛날 비구들이 모여 그 같은 얘기를 두고 논란을 한 적이 있었지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비구들이여!

너희들이 한 얘기는 너희들로 하여금 끝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참된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세상에 부처님이 출현 하셨을 때와

더 없는 진리를 듣는 기회를 만났을 때와

비구들이 화합하여 수행해 나갈때가 참으로 행복한 것이니라

그러시고는 이런 계승을 읊으셨다네

깨달은 이의 출현은 즐겁고 바른 설법을 듣기도 즐겁다 고단의 화합도 즐겁고 화합한 사람들의 수행도 즐겁다

참 행복이 뭘지 알았을테니 어서 들어가서 일어나 하세

## 사과문

업체명 : 대덕사  
성명 : 김영삼  
주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62-27호 우송 B/D

상기 본인은 불교용품 생산 유통업체 성심원(대표 박영임)이 생산 판매중인 연꽃 차걸이(의장등록번호 140758, 유사 의장등록번호 140758-1)가 의장등록이 되어있는 상품인줄 알고 있었음에도 성심원의 동의없이 임의로 유사한 복제품을 따로 만들어 불법 유통시킨바 기존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시켰으며 성심원에는 불법 유사 복제품 유통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이거니와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 시켰으므로 피해업체 성심원에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는 이와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96년 11월 26일  
김영삼

##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 대구여래한방

## 관세음보살님 목걸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수경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불루사파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14k 0.5MC 특수도금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경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건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한층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장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 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  
호출 012-303-9207

## 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치료, 스트레스 완화시켜 뇌내모르몬의 분비를 활성화 함으로써 노화방지는 물론 현대인의 잡다한 병(30~50대 여성)의 화병, 불안, 신경질, 불면증, 피부병, 직장인·수험생건강 등을 예방 치료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참 좋습니다.

\* 세계 유일의 보석 옥산가 배우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당뇨병 90%, 심장질환자 80%, 위궤양 90%, 어지러움증 80%, 두통 85%, 고혈압 78%, 관절염 90%]의 놀라운 치료효과를 기록했다.

108원(주) W320,000 목걸이 W150,000  
단주(大27일) W250,000 단주(고루종) W70,000 명상용(기)방석 W120,000  
반지 W45,000  
계좌번호 중소기업은행 001-051259-02-015 예금주 조영숙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라운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天山家 777-0105  
吳昊空 許亨